



우리는 일상대화에서 가정법 쓰기를 좋아한다. ‘만일 내가 부자였더라면’, ‘이번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하면서 여러가지를 상상하며 즐거워한다. 또한 여성들은 ‘조금만 더 예뻐다면’ 하면서 ‘탤런트 아무개가 부럽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원하는 바가 되었더라도 실감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을 쳐다보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이런 저마다의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던 파스칼도 있지않은가. 많은 여성들이 이런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손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또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조금만 더 날씬해졌으면’ 하는 생각에 죽음을 무릅쓰고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 난에는 살을 빼주겠다는 이야기가 도처에 쓰여져 있다. 뚱뚱했던 사람의 살빠진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해외토픽에 실리고는 한다.

그러다보니 먹기를 거부하여 굶어죽거나 이노제를 남용하다 죽는 일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여성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변강쇠였더라면’ 하는 환상에 빠지기를 좋아한다. 여성은 무조건 오래하면 좋은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강하고 오래할 수 있다면’ 하면서 정력제를 먹는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성기가 남보다 작게 느껴져 고민을 하고 성기확대수술을 받기도 한다. 파트너에게 성적만족을 주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초조해하기도 한다.

정력이라는 지상최대의 과제 앞에는 지위나 빈부에 관계없이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다. 정력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한창 일을 할 나이에는 사업이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며칠 밤을 세워도 끄떡없는 젊음을 보면 정력이 좋다고 한다. 나이가 든 후에는 성적욕구나 발기력을 의미한다.

한번의 발기로는 만족을 못하고 여러 번 발기가 되어야 정력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다. 어떤 환자는 정력이 떨어졌다기에 물어보니 과거와는 달리 발기횟수가 줄었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들어가는 남성을 되살리기위해 온갖 애를 쓴다. 중년 여성들은 파트너의 정력이 약해질까봐 두려워 조심스럽게 정력이 좋아진다는 음식을 남편 밥상에 올려놓기도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력에 좋다는 약을 사가지고 오거나 혹은 여행 갖다온 친지들이 가져왔다면서 진료실 책상에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사람이 있다. 정력에 좋다고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왔는데 어떤 종류의 약인지, 먹어도 되는지 봐달라는 것

이다. 약의 종류는 왜 그렇게도 많은지 각양각색이다. 온갖 약제들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나 성분을 보면 한낱 영양제에 지나지 않는다. 비싼 돈을 주었는데 속은 것이 아니냐며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필자보고 임상실험을 해보라며 놓고 가기도 한다. 인간은 왜 물개가 될 수 없을까. 인간은 왜 코뿔소가 될 수 없었을까. 성적능력을 증가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에로스의 화살을 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력과 회춘은 모든 남성들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유럽인들은 코뿔소의 뿔이 우람하게 보이고 인간의 발기된 모습과 비슷하며 단단하여 한때 뿔가루가 성적능력을 증가시키는 최음제로 믿었다. 따라서 이런 속설 때문에 밀렵꾼들에 의해 아프리카의 코뿔소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동양에서는 물개의 성교시간이 길다는 이유 하나로 정력이 세다고 보여짐으로써 수난을 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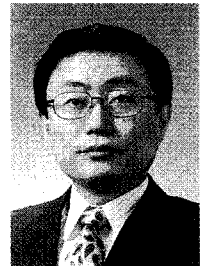
만일 해구신이나 뱀이 그렇게 성적능력을 향상시키는 명약이라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들이 벌써 해구신이나 뱀을 정력제로 만들어 판매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무지의 소치인줄은 몰라도 아직 해구신이나 뱀을 이용한 약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또한 해구신 농장이나 뱀사육 농장이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코뿔소의 뿔이 우람하게 보이고 물개가 정력이 세다는 속설에 많은 사람들은 그 뿔을 먹고 해구신을 먹는다. 해당 동물을 먹으면 그것의 정기가 본인에게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용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실제로 약효가 있는지는 규명된 바가 없으나 심인성 발기부전환자에게는 자기 암시에 의한 치료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만일 성기 자체의 고장에 의한 발기장애가 왔다면 이러한 약물도 속수무책으로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도 역시 이런 동물들에서 힌트를 얻어 남성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성기내부에 보형물을 넣어줌으로써 발기부전을 해결한 것이다.

음경보형물은 발기가 되지않아 고민하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없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발기가 되었다가 평상시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몸에 넣고 다니는 정력제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정력제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정력제보다 더 우수한 음경보형물 수술은 영구적으로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였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